서예와 조각의 만다라 '이모스컬퓨쳐'

허회태 '심장의 울림' 展
예술의 전당 2월 19~27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회화적 서예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허회태 작가의 '심장의 울림' 전이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모그래피(Emography)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으로 서예의 확장을 알렸던 허 작자가 이번에는 '이모스컬퓨쳐(Emosculpture)'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서예의 확장을 또 한 번 보여준다.

이모그래피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 과 서예라는 의미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 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그림의 결합이었다면, 이모스컬퓨쳐란 '이모션(Emotion)' 과 조각품을 의미하는 '스컬퓨쳐(Sculpture)' 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조각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이모그래피 전시에서 인간사회의 희로애락을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가장 단순하게 축약하여 표현했다면, 이모스컬퓨쳐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허 작가의 철학을 직접 붓으로 쓴 메시지가 담긴 입체조각을 선보이는 전시로 우주와 생명의 원초적 현상에서 비롯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이미 매월 20만 명이 방문하는 영국 Art Jobs Gallery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미국 CNN 'Great Big Story' 채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장인으로 소개되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 조형회화와 조각설치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 작품으로써 관객의 곁으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작품들은 그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관람객에게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작품들은 심오한 매력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

허 작가가 근래 집중하고 있는 작품의 내용은 '위대한 생명의 탄생' 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꽃' , '심장의 울림' , '헤아림의 잔치' 로 확장해가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형식은 정비된 콘셉트와 양식으로 진화하여 유기적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심장의 울림' 은 본래 실체가 없어서 형상이나 색깔이 없지만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마음' 을 표현한 것이다.



허회태 作, 생명의 꽃 · 운석 및 혼합재료 117X91cm.

"마음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만든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며, 유심소현(唯心所現)이다. 그러나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장의 모양을 따서 '심(心)' 자를 만들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심장의 울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며, 마음 안에서 밖의 세계로 확산되어 간다. 심장은 정밀함을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심장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심장의 울림' 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이입하는 것이다."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心' 에서 출발하여 확산된다. 균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 동서남북 4방위로써 인류의 질서를 구현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생명의 탄생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든 세상의 소용돌이를 표현한다. 한 가지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다. 심일경성(心一境性)의 경지에서 시각적으로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끝없이 팽창 · 확산되어 소우주의 무궁함으로 표현된다.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부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만다라의 세계와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무한하게 펼쳐진다.

허 작가의 예술은 끊임없는 창조와 도전이다. 허 작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내용은 각자의 고유 영역의 벽을 허무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기기(器機)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래예술의 방향도 동서양의 예술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02)580-1300.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신라인의 효심으로 빚은 불보살상

국립중앙박물관 감산사 아미타여래상 · 미륵보살상
조성 1300주년 기념 연계강연회, 전시설명회 개최

강연회 / 2월 20일 오후 2~4시 대강당
설명회 / 2월 27일 오후 6시 불교조각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상설전시관 3층 불교조각실에 전시중인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국보 제82호)과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81호)의 조성 1300주년을 맞아 학술적 가치와 의미 등을 조명하기 위해 연계강연회와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연계 강연회는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이다.

전시설명회(큐레이터와의 대화)는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선주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이다.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과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조형적으로 중국 당나라와 일본 덴표시대의 불교조각과 공통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넓적한 얼굴형이나 약간 경직된 몸의 표현은 인체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중국이나 이를 답습한 일본 불상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감산사의 불상들은 8세기 전반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국제적 양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신라인들이 추구하는 미술세계와 탁월한 표현 감각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여래상과 보살상은 광배 뒷면에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료를 적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719년(통일신라, 성덕왕 18년) 2월 15일,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했다. 김지성은 신라 17관등 중 여섯 번째인 아찬보다 높은 중아찬까지 올랐고, 벼슬은 오늘날 행정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집사시랑을 지냈다. 그는 705년(성덕왕 4)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곳 황실로부터 상사봉어라는 관직을 받는 등 외교적으로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김지성은 평소에 산수를 좋아하고 중국의 노장사상을 흠모하여 67세에 은퇴한 뒤에는 전원으로 돌아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고, 인도 스님 무착이 지은 불교철학서 〈유가사지론〉을 보며 불법(佛法)을 깊이 연구했을 만큼, 불교의 교리에도 상당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감산사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한 이듬해(720, 성덕왕 19) 4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김지성은 말년인 719년 가족친지와 주변 지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경지에 오를 것을 기원하며 자신 소유의 감산장전(甘山莊田)과 산을 시주하여 서라벌 동남쪽(오늘날의 경주시 외동읍)에 감산사를 열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했다. 여래상과 보살상을 모신 날짜는 2월 15일인데 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일이다.

훗날 고려시대 일연 스님(1206~1289)은 〈삼국유사〉의 남월산조에서 이 여래상과 보살상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미륵존상이 감산사 금당의 주존이었다고 한다. 마치 현장을 둘러보고 남긴 듯한 일연 스님의 기록은 오늘날 이 여래상과 보살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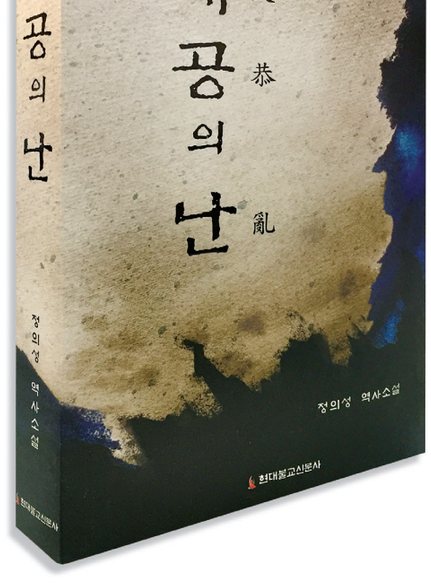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통해 신라 불교미술의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